



“네이버·넥슨·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

공정위, 자산 5조 이상 5곳 신규지정
동원·삼라마이더스도 포함…공시 의무



이슈

네이버, 넥슨, 동원, SM(삼라마이더스),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자산 규모 5조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대신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



네이버, 넥슨, 동원, SM(삼라마이더스), 호반건설이 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5조~10조원 구간에 포함된 기업집단은 코오롱(자산총액 9조6000억원), 카카오(6조8000억원) 등 모두 26개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동원(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등 5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개선을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증가했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고, SM 역시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넥슨 역시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3개에서 4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가 주요 계

열회사 매각 등으로 제외된 가운데, 네이버 등 5개 기업집단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8개로 유지됐다.

특히 총수 없는 기업을 주창해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네이버 동일인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명시했다. 이 전 의장 지분이 4.49%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 이 전 의장의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사세요

2차분 11~29일 선착순 예약 판매
액면 2000원화 기념지폐 3종 눈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2차분)’가 11~29일 전국 주요 은행 및 우체국, 판매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을 통해 선착순 예약 판매된다.

액면 2000원화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지폐’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날장형(발행량·92만장), 2장 연결형(발행량·21만세트), 24장 전지형(발행량·4만세트), 총 세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기념은행권으로써 특이성과 소장성을 유

지하기 위해 액면을 비사용권인 2000원으로 정했고, 크기는 다른 유통지폐와 차별화하기 위해 가로 140mm, 세로 75mm로 정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 특히 액면은 5만원권에 준하는 위조방지 보안요소를 적용해 소장성을 높였다.

기념은행권 앞면은 대한민국이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최초로 참가한 중목인 스피드 스케이팅을 메인으로 한다. 또 세계 동계 스포츠 연맹의 6개 종목들 강원도 산악지형을 배경으로 디자인 했으며, 뒷면은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를 세로로 차용했다.

기념주화 2차분은 금 99.9%로 제작된 금화 2종과 은 99.9%로 제작된 은화 7종, 황동화 1종으로 구성됐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왼쪽)과 김연아 홍보대사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풍산빌딩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2차분)’ 실물 공개 행사에서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풍산화동양행

‘마법의 빗질’ 빙판의 체스 킬링 어때요?

한국관광공사, 가을겨울 여행상품 선정
동계올림픽 패키지 평창·강릉여행 포함

관광산업의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가을과 겨울 야외 액티비티, 체험활동에 중점을 둔 여행상품이 나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레저스포츠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이 결합된 여행상품 공모를 진행해 8개의 가을 상품과 2개의 겨울 상품을 최종선정했다.

8개의 가을철 여행상품들은 하늘 자전거길 자전거 하이킹과 물레길 카누 에코투어(춘천), 가을을 온 몸으로 느끼는 레프토투어(홍천), 1박2일 자전거여행(통영), 마법의 빗질로 펼쳐지는 빙판의 체스 킬링을 즐기자, 레저스포츠,



통영 루지 체험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사과축제 짚라인과 가을에 젖어본다(문경), 소매물도 선상낙시체험 루지&케이빙가 레저(통영), 강원도 가을 레저체험 1박2일 여행(인제, 강릉), 평창로지에서 가을레저(평창) 등 8개다.

또한 내년 1~2월에 운영할 2개의 겨울철 여행상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 패키

지와 숲, 바다, 예술이 어우러진 평창·강릉 겨울여행이다. 다양한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들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경기관람 및 올림픽홍보관 체험 등의 패키지 상품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한 가을·겨울철 레저스포츠 여행상품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며 여행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카페,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판매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여행상품의 판로 개척 및 관광객 모집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권영미 팀장은 “해당 여행지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상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상품만족도 조사 등의 상시적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여행상품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NS홈쇼핑, 18일까지 신입사원 공개

NS홈쇼핑이 2017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MD(TV, 온라인, 카탈로그), PD,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영업기획, 협력사 관리, 재무(회계/세무) 등 6개 분야다. 지원요건은 2017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모집 분야별 직무 상세 내용은 N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서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성·직무적성 검사, 1·2차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신입사원들은 12월1일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호랑이 불리온 메달’ 선착순 예약 판매



NH농협은행이 4일부터 ‘호랑이 불리온(금과·사진) 메달’을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순금 3종(31.1g, 15.55g, 7.78g 각 200장)과 3종 세트 200세트로 구성됐다. 조폐공사가 99.99%의 순도와 중량을 보증하며,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 수량에 한해 고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측은 “불리온 메달의 국내 인지도가 낮은 편이나, 이번 농협은행의 판매로 고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정국 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

한 눈으로 보는 주간경제

8월29일~9월1일

코스피지수	2357.69	↓	-5.50
코스닥지수	661.99	↑	+4.16
日 닛케이 지수	1만9691.47	↑	+45.23
中 상하이 종합	3367.12	↑	+6.3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5		0
환율(원·달러)	1120.50	↓	-6.50
국제금값 (달러/트로인스)	1324.50	↑	+8.30

오늘의 얼굴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GIO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사진)가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

로 지정하고, 이 전 의장을 총수로 규정하자 네이버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창업자가 4.31%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친인척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미 있는 성장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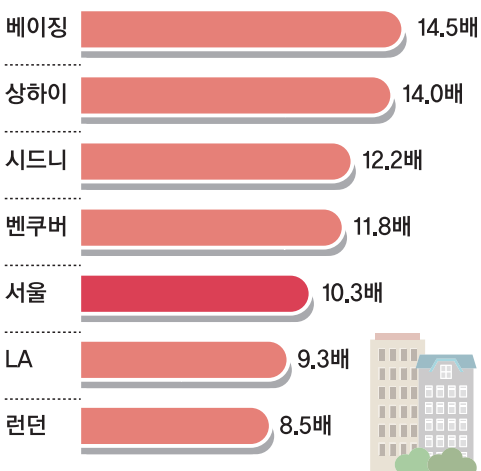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스마트홈이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객 가치 창출에 힘쓸 것”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오픈 혁신을 통해 AI 가전, IoT, 로봇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홈 생태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 “우리가 가격을 높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공개돼 더 좋을 것 같다” (치킨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실시하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 서는 나쁠 게 없다며)
- “가상통화는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 최근 비트코인 등의 거래 과열로 가상통화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데이터 경제

세계 주요도시 가처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2016년 3/4분기 기준)

3일 한국은행이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0.3배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쓰지 않고 10년 정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LA(9.3배), 런던(8.5배)보다 높았으나, 중국 베이징(14.5배), 상하이(14.0배), 호주 시드니(12.2배), 캐나다 밴쿠버(11.8배)보다는 낮았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5억9670만원으로 전국 평균 1.9배 수준이다.



●2017 우수여행사 명단

(인바운드·10개사) 내주여행사, 롯데관광, 루크코리아투어, 비케이여행사, 신화정여행사, 아주인센티브, 에스에이엔투어, 유에스여행, 코앤씨, 한진관광 (국내여행·5개사) 문치, 아름여행사, 웹투어, 한국드림관광, 흥익여행

김재범 기자

내주여행사·웹투어 등 15개사 우수여행사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용자 등 혜택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는 여행업계의 사기진작 도모와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1년간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한 15개 여행사를 ‘2017년 우수여행사’로 선정했다.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15개 여행사는 관광

진흥개발기금 특별용자(1억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상품 및 여행사 소개·홍보 시 ‘2017 우수여행사’라는 문구와 우수여행사로 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ATA에서 해외 시장 개척 홍보유치단 모집시 우선 배정 기회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필요한 광고·홍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광고·홍보비 지원금을 확대하